

사회복지조직들의 지역사회 자원 활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분석*

김 영 중**

< 목 차 >

- I. 서론
- II. 이론적 배경 - 조직과 환경
- III. 조사 방법
- IV. 자료 분석
- V. 결론: 연구의 한계 및 함의

I. 서론

1. 문제 제기

우리사회의 지역사회 자원 활용에 대한 강조는 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과 맥을 같이 해오고 있다.1) 지방자치화 시대의 등장과 함께, 가족의 기능을 보완·대체하는 대인복지서비스 분야에서는 지역사회와의 관련성에 대한 강조가 더욱 두드러진다.2) 비록 이러한 변화노력이, 신보수주의의 대두와 복지국가 후퇴

* 이 논문은 1992년도 교육부 학술진흥재단 지방대학육성과제 학술연구조성비에 의해 연구되었음.

** 경성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교수

1) 김용래, "신한국창조와 사회복지정책", 제7회 전국사회복지사대회 보고서, 한국사회복지사협회, 1993, pp.24-31.

차원에서 등장하였던, 탈시설화(Deinstitutionalization)와 정상화(Normalization)와 같은 순수 복지이념적 변화에 의한 것이던, 지역사회에서의 상호부조적 욕구 실현이 강조되고 있음은 분명하다. 이러한 변화는, 필연적으로, 지역사회 중심의 재가 혹은 소규모 시설을 통한 사회복지 전달체계를 구성하기 위한 지역사회 자원 동원의 필요성을 높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자원과 같은 지역사회 자원을 동원하는데 따르는 문제점들로 인해, 사회복지조직들이 지역사회 자원에 의존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으로 여겨져 왔다.³⁾

지역사회 자원 활용에 관한 기존의 논의들은, 사회정책적 필요성이라는 당위성 부분에 대부분의 초점이 맞추어져 왔다. 실제로 이들 자원들을 관리하고 활용하는데 있어서 주축이 되는 지역사회 복지조직들의 행태에 초점을 둔 논의는 오히려 제한적이 되어왔었다. 지역사회 복지조직들은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에서 최일선에 위치하고 있으며, 특히 대인적 복지서비스 전달과정에 있어서 이들 조직은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과 지역사회 자원 활용에 대한 현재의 논의에서는, 이들 조직들의 관점을 통한 지역사회 자원에 대한 가치 평가와 활용에 대한 이해가 우선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2. 연구 목적과 의의

본 연구는 사회복지조직들의 지역사회 자원 활용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 조직 내·외적 요인들을 분석하는 것이 목적으로, 사회복지조직과 환경의 상호작용, 그 결과 나타나는 사회복지조직들의 지역사회 자원 활용의 행태를 설명하고자 한다. 개별 환경적 요인들이 조직에 미치는 상대적인 영향력의 크기를 분석함으로써, 이러한 환경적 요소들이 사회복지조직들의 지역사회 자원 활용에 어떤 결과들을 초래하는가를 설명하려는 것이다.

본 연구의 학문적 의의는 사회복지조직들의 행태에 관한 이론적 발전에 있다.

2) 신섭중, "신복지정책의 방향과 과제", 사회복지, 119, 1993, pp.149-161. (특히, p.151의 그림 참조).

3) 김용일, "사회복지 인력과 재정", 지방화시대와 사회복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1991, pp.68-74.

한 사회에서의 복지서비스 전달과 관련한 사회정책적 목표가 대부분 이들 조직에서 구체화되어 서비스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들 조직에 대한 이해없이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사회복지 전달체계를 설계하기가 어렵게 된다.⁴⁾ 우리 사회에서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는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의 개편에 대한 논의는, 한국 사회적 환경 하에서의 복지조직들에 대한 이론적 이해 기반이 필요함을 나타내고 있다.

본 연구의 실용적인 의의는 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대안 마련에 도움을 주는 것이다. 증가되는 지역사회 자원 활용의 필요성에 비추어 볼 때, 본 연구를 통해 밝혀지는 영향 요인들에 대한 분석은 사회복지조직들의 지역사회 자원 활용을 증대하기 위한 기술적 방법들의 개발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사회복지조직은 '인간을 대상으로 하여 이들을 유지·변화시키게 만드는 활동을 하는'⁵⁾ 인간봉사조직의 한 형태이다. 이들 조직들은, 개별적인 관점에 따른 강약의 차이는 있지만,⁶⁾ 환경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다는 특성을 갖고 있다.⁷⁾ 사회복지조직들을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파악할 때, 현재 나타나는 사회복지조직들의 개별적인 행태들은 주어진 환경과의 상호작용의 산물로서 이해될 수 있다. 이는 곧, 사회복지조직들이 처한 외부 환경적 요소들을 분석해 봄으로써, 이들 조직들이 취하는 행태에 대한 설명이 가능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현재 조직들이 직접적으로

4) 성규탁, 사회복지행정론, 법문사, 1988, p.23.

5) Y. Hasenfeld and R. English, Human Service Organizations (Eds., Y. Hasenfeld & R. English), Ann Arbor, MI: The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1974, p.1.

6) Y. Hasenfeld, Human Service As Complex Organizations (Ed., Y. Hasenfeld), Newbury Park, CA: Sage Publications, 1992, pp.24-42.

7) M. N. Zald, "Political Economy: A Framework for Comparative Analysis", In Power in Organizations(Ed., M. N. Zald), Nashville, Tenn.: Vanderbilt University Press, 1970, pp.221-61.; J. Pfeffer and G. Salancik, The External Control of Organizations, New York, N.Y.: Harper & Row, 1978.

관련을 맺고 있는 환경 요소들은, 다양한 환경 가운데서 개별 조직들이 선택한 결과라는 점에서, 이러한 환경 요소들 자체가 또한 조직의 행태를 설명하는 결과물이 될 수도 있다.⁸⁾

사회복지조직들에 대한 환경의 영향력에 대한 강조가 곧 환경의 조직에 대한 완벽한 지배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주어진 환경하에서도 개별 사회복지조직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결정의 폭은 여전히 남아있을 수 있는데, 흔히 이를 조직의 전략적 요인이라고도 한다.⁹⁾ 그러나, 사회복지조직들이 갖는 전략적 요인들의 역할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들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제도적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조직적 요인들은 '비록 존재하지만 일정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¹⁰⁾ 조직들 간에 나타나는 차이를 설명하는 데는 적합하지 못하다고 본다. 사회복지조직들은 주어진 환경 자체를 변화시키기보다는 주어진 환경하에서 적응을 위한 선택들을 주로 한다는 점에서, 조직 요인들은 그 영향력이 2차적이 될 수 밖에 없다는 설명은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목적인 지역사회 자원 활용이라는 사회복지조직들의 행태 규명은, 환경과 조직의 관계에 대한 위의 설명들에서 이해의 기본적인 틀이 도출될 수 있을 것이다.

1. 사회복지조직과 지역사회 자원 환경

지역사회자원의 활용에 관한 논의들에서 나타나는 어려움은 지역사회에 대한 개념규정에 있다. 지역사회를 구성하는 요건들에 대한 규정이 지나치게 다양한 만큼,

8) T. D. Thompson, *Organizations in Action*, New York, N.Y.: McGraw-Hill, 1967, pp.26-27.; 예를 들어, 다양한 클라이언트 집단들 가운데 조직이 특별한 클라이언트 집단을 취사선택한 경우, 이 클라이언트 집단은 조직의 현재 환경이면서, 조직의 행태를 나타내는 결과이기도 하다.

9) Hasenfeld(1983) 는 이를 조직들이 개별환경들을 선별하고, 영역(Domain)을 결정해가는 역할로서 설명한다.; Y. Hasenfeld, *Human Service Organizations*,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1983, pp.63-69.

10) J. V. Singh and C. J. Lumsden, "Theory and research in organizational ecology", *Annual Review of Sociology*, 16, 1990, pp.161-195.

지역사회의 개념 정의 또한 매우 복잡하다.¹¹⁾ 결과적으로는, 지역사회 개념은 현재 제시되는 문제의 성격에 가장 적절한 정의가 사용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사회복지조직이 활용할 수 있는 지역사회적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로서의 지역사회란, 지역의 제반 기능들 중에서도 특히 상호부조 기능을 공유할 수 있는 범위를 뜻하는 것이 될 것이다.¹²⁾

한국 사회적 상황에서의 지역사회의 성격은, 미국 사회적 환경을 배경으로 하는 지역사회에 대한 문헌들에서 나타나는 지역사회적 성격의 퇴조와는,¹³⁾ 그 의미가 다소 다른 점이 있다. 이러한 지역사회의 성격 차이는, 사회복지조직들의 지역사회 자원에 대한 태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미국사회의 복지조직들이 대부분 지역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민간 주도의 자생적 조직들에서 출발하여, 점차 지방 그리고 연방 정부 자원으로 의존하게 되는 변화를 겪으면서 지역사회의 자치성을 상실하게 되는 것과는 달리,¹⁴⁾ 한국사회의 복지조직들은, 지역사회적 문제들과는 별다른 관계가 없이 해방 귀환 동포나 전쟁 난민 구호를 위한 수용소 성격에서 출발하여 사업 수행을 위한 자원들도 의원이나 정부보조에 의해 주로 공급받아 오다가, 차츰 지역사회와 관련을 맺기를 강조당하고 있다.

현재에도 사회복지조직들의 다수가 수용시설들이고, 이러한 조직들의 사업 내용 또한 지역성(locality)을 가진 지역사회와 밀접히 관련된 사업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단지 한 지역에 우연히 위치해 있을 따름인 조직들일 가능성이 큰 것이다. 기존의 수용시설들과는 달리 비교적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지역사회복지관들조차 이러한

11) R. M. Kramer and H. Specht, *Readings in Community Organization Practice* (3rd ed.: Eds., R. M. Kramer & H. Specht),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1983, pp.25-26.

12) 최일섭, "지역사회와 사회복지", *아산*, 51, 1991, pp.12-13.

13) R. L. Warren, "A Community Model", in *Readings in Community Organization Practice* (3rd ed.: Eds, R. M. Kramer & H. Specht),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1983, pp.28-36.

14) A. W. Tourigny and J. A. Miller, "Community based human services organizations: Theory & practice", *Administration in Social Work*, 5(1), 1981, pp.79-86.; K. H. Flaming, "Community control in a Gessellschaft world",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6, 1978, pp.22-24.

지역사회 자원의 활용에 어려움을 나타내고 있는 것도,¹⁵⁾ 한국사회의 복지제도 형성 과정에 따르는 역사성으로 인한 복지조직과 지역사회와의 연계성 부족, 그리고 이로 인한 사회복지조직들 전체의 지역사회적 자원 활용에 대한 생소함 등에서 그 근원을 찾아 볼 수 있을 것이다.

지역사회 자원의 활용은 조직들이 갖는 지역사회 자원에 대한 관심과 실제 활용도를 통해 볼 수 있다. 지역사회 자원이란 지역성의 범위를 갖는 사회내에서 존재하는 자원으로, 정부자원의 미분화 상태를 감안하여 볼 때,¹⁶⁾ 현재로서는 주로 민간자원에 국한시켜 볼 필요가 있다.

사회복지조직들의 지역사회 자원에 대한 관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이제껏 이들 조직들에 제공되어 왔던 자원에 대한 성격 규명이 일차적으로 필요하다. 앞서 논의된 대로, 조직 외부에 존재하는 자원 환경에 대한 이해는 조직의 행태를 규명하기 위한 일차적인 조건이 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사회복지조직의 외부환경은 크게 일반환경과 업무환경으로 구분된다.¹⁷⁾ 일반환경은 조직에 대한 거시적 환경조건으로, 인구학적 변화와 정치·경제·문화적 여건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¹⁸⁾ 이러한 환경들은 조직의 형성과 쇠퇴에 있어서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만,¹⁹⁾ 개별 조직들에 대한 직접적인 관련성을 규명하는데 사용되기는 어려운 까닭으로 인해, 보다 직접적으로 조직과 관련을 맺고 있는 업무환경적 요소들이 조직의 환경적 분석에 유용하게 쓰인다.²⁰⁾ 다양한 업무환경 요소들 가운데서도, 재정 자원, 인적 자원, 그리고 클라이언트 자원 등이 조직에 대한 분석에서 주로 다루어 진다.

15) 김상균·백종만·오정수, "지역사회 자원동원의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회복지관 모형 개발 연구", 사회복지연구, 3, 1991, pp.19-42.

16) 사회복지에 대한 정부지원은 대부분 중앙정부 교부금의 성격을 가지므로, 이를 지역사회자원에 포함시키기는 현재로서는 어렵다.; 유종해, "지역사회 복지와 재원", 아산, 51, 1991, pp.28-33.

17) R. Hall (1977) 에 의한 구분; 참고, R. H. Hall, *Organizations: Structure and Process*, Englewood Cliffs, N.J.: Prentice Hall, 1977.

18) Y. Hasenfeld (1983), 전게서, pp. 51-59.

19) D. J. Tucker, J. A. Baum, J. V. Singh, "The institutional ecology of H.S.O.", in *Human Services as Complex Organizations* (ed. Y. Hasenfeld), Newbury Park, CA: Sage Publication, 1992, pp. 47-72.

20) Y. Hasenfeld (1983), 전게서, pp.59-66.

21) 권위 및 합법성의 제공 환경은, 비록 경험적인 조작화는 어렵지만 그럼에도 매우 중요한 환경 요소임에 분명하며, 22) 제정·인적·클라이언트와 같은 다른 환경적 자원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종종 분석에 포함된다.

사회복지조직들에 대한 자원환경은, 지역사회와의 관련성 기준을 통해, 지역사회 내부에서 존재하는 자원과 지역사회 외부에서 존재하는 환경적 자원으로 구분되어 질 필요가 있다. 23) 이러한 구분은 지역사회 복지조직들에서 두 종류의 자원환경에 대한 상대적인 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알 수 있게 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들 두 종류의 자원에 대한 조직의 활용정도와 기대수준의 비교를 통해서, 조직의 환경에 대한 반응으로서의 지역사회 자원활용이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사회복지조직들이 자신들에게 필요한 자원을 조직 외부 환경에서 동원하려고 할 때, 지역사회 내부 환경자원만을 반드시 고집해야 할 이유는 크지 않다. 환경과 조직의 교환관계라는 측면에서 볼 때, 조직은 지역사회 내·외부의 개별 자원들에 대한 가용성과 그로 인한 상대적인 비용 등을 감안하여 자원을 획득하려 할 따름이다. 앞서 논의된 것처럼, 한국사회적 현실에서 지역사회 외부 자원이 현재까지는 사회복지조직들을 지배하는 환경이 되어왔었다면, 그에 대한 조직의 반응은 지역사회 내부 자원의 존재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나 활용에 대한 소극성으로 나타났었을 것이다. 지역사회적 자원의 절대적 빈곤 또한 지역사회 복지조직들의 이러한 성향을 강화시키는 데 일조를 해왔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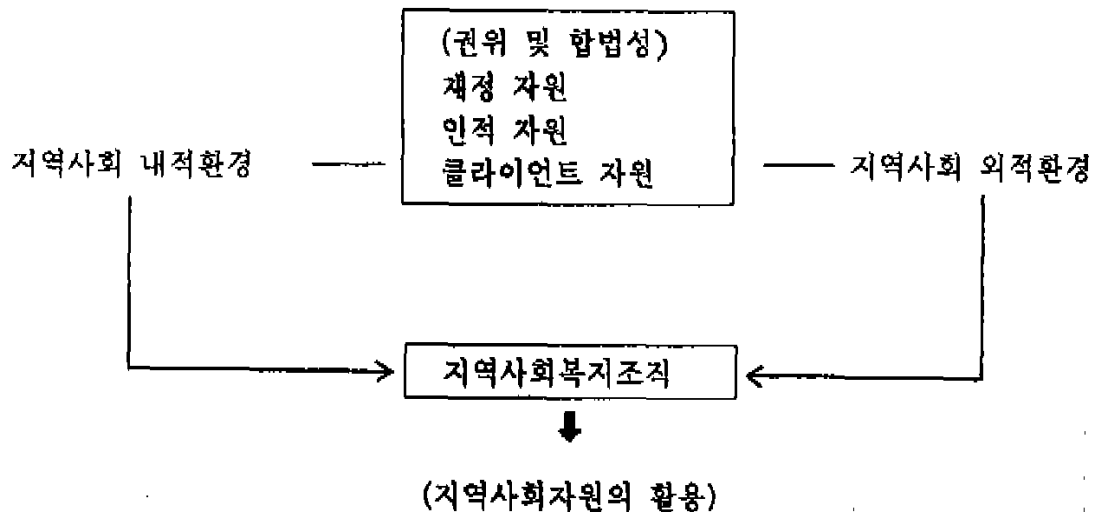
2. 이론적 틀

앞서 논의된 것들을 통해 지역사회 복지조직들의 지역사회 자원 활용이라는 행태가 도출되는 과정을 정리하자면, 다음의 (그림 1)과 같다.

21) 정진영, 사회복지조직의 유효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1985, pp.20-29.

22) A. W. Tourigny and J. A. Miller, 전개서, pp.80-81.

23) 상계서, pp.79-86.



(그림 1) 지역사회자원 활용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과 조직의 관계

III. 조사방법

1. 조사대상

본 연구는 개별 사회복지기관들을 연구 단위로 하고, 부산지역에 위치한 민영 사회복지기관들을 표집의 대상 집단으로 하였다.²⁴⁾ 연구대상 기관을 부산지역에 한정하였던 이유는, 연구의 성격상 비교적 동일한 거시 환경에 대한 전제가 필요했고, 연구자의 이에 대한 적절한 통제가 가능했기 때문이다.²⁵⁾

조직과 기관이란 용어는 유사하게 쓰여지나, 엄격한 의미로는 차이가 있다. 경험적 단위인 기관에 비해, 조직은 추상적 관계를 나타내며 기관과 법인의 관계까지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쓰인다.

24) 본 연구가 대상으로 하는 대인적 복지서비스를 담당하는 사회복지기관들은 대부분 민영의 형태를 띠기 때문에, 체제가 기본적으로 다른 소수 관영 기관들은 여기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25) 이 경우에, 지역적인 특수성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대표성의 문제는 이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있어서의 제한점이 될 수 있다. 이러한 한계를 부분적으로 극복하기 위해, 기존의 연구 결과들을 연구 과정에서 참고하였다.

2. 자료수집

자료수집을 위한 방법은 설문지법을 사용하였고, 설문은 1993년 12월 초순부터 2주에 걸쳐 실시되었다. 설문지는 반드시 기관장이나 상위 관리자가 작성하도록 주지시켰다. 응답률이 낮을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전에 협조를 구하는 편지를 보냈고, 설문요원을 각 기관에 방문케 하여 직접 설문지를 제시하고 받아오는 형식을 취하였다. 그 결과 비교적 높은 회수율을 나타내서, 총 84 곳의 기관이 응답을 해왔다(회수율 88.4%). 또한, 설문에 응하지 않은 11개 기관은 특정 기관에 한정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였다.²⁶⁾

자료수집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인 자료의 신뢰도를 보충하기 위해서는, 몇 종류의 비교자료를 사용하였다.²⁷⁾ 그러나, 비교자료로서도 확인되지 않는 기관들의 부분 항목들은 존재하였고, 이러한 문제들은 자료분석과정에서 개별 사안 별로 해석해 나가는 방법을 취하였다.

26) 설문에 응하지 않은 기관이 육아시설(3), 장애인시설(2), 양노시설(2), 정신요양시설(1), 사회복지관(2) 등으로 골고루 분포되어 있어서, 기관종별 특성과 관련해서 표집 결과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은 것 같다.

27) 부주의나 고의로 인한 항목별 자료 누락 등의 문제에 대비해, 비교자료로서 1) 부산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기관 관련 자료, 2) 부산시의 기관 연말정산보고서, 3) 부산시의 사회복지기관지원상황보고서 등을 활용하였다.

<표 1> 설문자료의 기관별 분포 비교

기관구분	설문자료	부산시 ¹	전국 ²
전체	84 (100%)		
수용시설	56 (66.7) (100%)	75 (100%)	704 (100%)
영·육아	18 (21.4) (32.1)	24 (32.0)	279 (39.6)
노인	7 (8.3) (12.5)	7 (9.3)	106 (15.1)
장애인	11 (13.1) (19.6)	17 (22.7)	136 (19.3)
부녀	11 (13.1) (19.6)	12 (16.0)	63 (9.0)
정신요양	8 (9.5) (14.3)	11 (14.7)	74 (10.5)
기타	0 (0) (0)	3 (4.0)	46 (6.5)
비수용시설	28 (33.3) (100%)		
사회복지관	21 (25.0) (75.0)		
홍보·상담기관	4 (4.8) (14.3)		
입양기관	3 (3.6) (15.7)		

1) 92 부산시통계연보, 2) 92 보사통계

IV.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들은 부산지역의 기관별 분포를 골고루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1> 참조). 이를 전국 분포와 비교해 보면, 본 조사의 기관들은 부산지역 기관 분포의 특성을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²⁸⁾

28) 부산지역에는 부녀관련시설(모자원, 부녀직업보도시설 포함)이 상대적으로 많은데 비해, 노인시설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정신요양시설, 장애인시설 등이 전국 평균을 넘는 분포를 나타내기 때문에, <표 1> 에서와 같은 전국 분포와의 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1. 재정 자원 환경

재정자원은 조직을 운영하는 기본 자원으로, 사회복지조직들의 재정자원 원천에 대한 분석은 이들 조직들의 지배적인 영향력의 원천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 보조금과 자체부담에 의한 구분이 <표 2>에 나와있다. 전체적으로는 정부보조비율이 높은 편이며, 이는 곧 정부 환경의 사회복지조직들에 대한 영향력의 크기를 나타낸다. 조직들을 종별로 구분하여 보면 정부보조비율의 유의미한 차이가 발생하는데, 비수용시설들에 비해 수용시설들이 월등히 높은 정부보조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개별 사회복지조직들의 정부자원에 대한 선호도를 분석해 보면, 정부자원에 대한 현재의 의존(「정부보조비율」)이 높을수록, 정부자원에 대한 기대감(「정부보조희망%」)도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n=69$, $r=.73$, $p<.001$).²⁹⁾ 조직들은 정부자원에 대해 전체적으로 높은 기대감을 갖고 있으며, 수용시설들의 경우에는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는 성향을 나타내고 있다.³⁰⁾ 사회복지관이나 상담·입양·홍보 기관 등과 같은 정부자원에 대한 기존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조직들에서조차, 정부보조에 대한 기대를 현재보다 높게 하는 것은, 역으로 말하자면, 지역사회 복지조직들이 정부이외의 자원 환경들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정부보조를 선호하는 압도적인 이유는 '정기적이고 안정적'이기 때문이었고, 대부분의 사회복지조직들의 지출 구조가 인건비와 경상비를 중심으로 한 비용이라고 본다면, 조직의 유지를 위해 정기적인 자원 공급에 대한 선호는 오히려 당연한 것으로 보인다.³¹⁾

29) 「정부보조비율」은 <표 2> 참조. 「정부보조희망%」은 정부보조와 자부담의 바람직한 배분을 희망하는 %로 답하도록 한 것.

30) 「정부보조희망%」의 분석 결과, 전체 ($n=76$, $mean=87.3\%$, $s.d.=14.9$), 수용시설 ($n=50$, $mean=95.2\%$, $s.d.=6.4$), 사회복지관 ($n=19$, $mean=72.6\%$, $s.d.=13.3$), 상담·홍보·입양 ($n=7$, $mean=71.3\%$, $s.d.=20.9$) 으로 나타났다. 기관종별3대구분: ANOVA (D.F.=2,73, $F=41.9659$, $Sig.=.0000$, $Eta = .7313$)

31) 정부보조 선호 이유를 [정기적·안정적], [자원풍부], [사업권위보장], [지휘·감독 활용], [지역이기주의 탈피]로 나누어 우선순위를 묻은 질문. 자체부담을 선호하는 이유에 대한 유사한 우선순위 질문에서, [정기적·안정적] 항목이 최하위에 머문 것도 위의 논리를 뒷받침하고 있다.

<표 2> 정부보조와 자부담의 구분에 의한 사회복지기관의 재정

(92년도 결산기준)

단위: 백만원

구 분	전체 ¹ (S.D)	정부보조(S.D)	자부담(S.D)	정부보조비율 ²³	N
수용시설	256.1 (164.7)	199.7(126.6)	54.5 (52.6)	.80 (.11)	48
아동	198.1 (116.8)	152.3 (64.7)	46.0 (63.1)	.81 (.12)	13
노인	201.5 (101.2)	183.8 (97.8)	17.7 (5.2)	.90 (.05)	6
장애	301.2 (151.0)	221.4(100.8)	79.8 (61.5)	.76 (.09)	11
부녀	122.2 (65.3)	92.9 (52.4)	29.3 (27.8)	.78 (.15)	10
정신	496.6 (97.8)	404.1 (95.2)	92.5 (21.7)	.81 (.05)	8
사회복지관	194.6 (122.1)	77.5 (38.2)	117.1 (93.5)	.44 (.12)	20
상담·홍보·입양	288.8 (205.8)	72.8 (99.9)	216.0(196.3)	.20 (.28)	5
전체	241.5 (157.8)	158.6(122.2)	82.7 (91.3)	.66 (.24)	73

1) 시 운영비정산자료와의 상관관계 (n=43, r=.98, p<.001)

2) 기관종별7대분류 (수용시설 5, 사회복지관 1, 상담·홍보·입양 1) 에 의한
정부보조비율: ANOVA (D.F.= 6,66, F= 32.5612, Sig.= .0000, Eta= .8646).

3) 기관종별3대분류 (수용시설, 사회복지관, 상담·홍보·입양) 에 의한
정부보조비율: ANOVA (D.F.= 2,70, F= 93.6579, Sig.= .0000, Eta= .8532).

사회복지사들이 동원하는 자체부담을 세분화하면, <표 3> 과 같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바는, 개별 조직들의 성격에 따라 자체수입의 원천도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지역사회 자원을 민간자원과의 관련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본다면, 자체수입에 포함된 대부분의 항목들이 지역사회 자원의 성격을 띤다. 한편, 지역사회 자원을 좁은 의미로 지역사회내에서의 상호부조적인 성격을 강하게 띠는 자원이라고 본다면, 자체수입 중에서도 클라이언트와 법인자원을 제외한 후원과 모금 등에 의한 자원이 지역사회적 자원의 성격을 보다 강하게 나타낸다.

지역성에 대한 강조를 두어 자원의 원천에 대한 분석을 해보면, 수용시설에 있어

서 자체부담의 주류를 이루는 후원, 모금 및 기탁금을 제공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지역성을 강하게 띄지 않는다. 대부분의 후원인들이 부산 전역에 골고루 흩어져 있고 (수용시설 n=40, 28/40), 인근 동지역이나 구청 관내에 속하기 보다는 (3/40), 오히려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9/40) 나타나고 있다.³²⁾ 이는 상담·홍보·입양 기관들의 경우에는 더욱 심하게 나타나서, 인근 동이나 구청 관내에서 후원의 거점을 두는 곳은 한 곳도 없었다 (상담·홍보·입양·기관 n=7, 인근 동이나 구청 0, 부산 5, 전국 2). 단순히 지역성만을 강조한다면, 사회복지관들에 있어서 자체부담의 주를 이루는 서비스이용료는 분명 지역사회적 자원에 속한다. 사회복지관들에 있어서는, 주로 인근 동지역이나 적어도 구청 관내 지역 정도에서 대부분의 유료이용인들이 동원되기 때문이다 (사회복지관 n=21, 인근동·구청 17, 부산·경남 4, 전국 0).

<표 3> 기관별 3대 구분에 의한 자체수입 원천

구분	전체 N = 72 자부담비율 = 34	수용시설 47 .20	사회복지관 18 .56	상담·홍보·입양 7 .80
외부 자원	42.8%	54.8%	15.6%	37.6%
후원회비	25.4	31.3	9.7	31.4
비고정모금	9.5	12.3	4.8	2.9
용도지정기탁금	7.9	11.2	1.1	3.3
클라이언트 자원	19.7%	9.4%	49.7%	5.7%
서비스이용료	19.7	9.4	49.7	5.7
법인 자원	37.3%	34.6%	34.6%	56.6%
시설임대료	1.0	0.6	0.9	3.7
외부수익사업	9.2	9.9	5.0	15.6
여타법인전입	27.1	24.9	28.7	37.3

32) 이 결과는 후원인들이 주로 어떤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서 나온 것으로, <표4> 와 같은 지역구분을 따르나, 한 기관이 하나의 지역만을 선택하도록 강제하였다.

2. 클라이언트 자원

클라이언트는 사회복지조직들이 재정자원 확보를 위한 정당성의 이유로서 동원되기도 하고, 혹은 클라이언트 자체가 재정자원이 되기도 한다. 수용시설들에 있어서는 클라이언트의 수는 곧 조직의 재정자원 동원의 크기를 결정한다. 대부분 운영비의 80% 이상을 정부보조에 의해 공급받는 상태에서, 정부보조를 확보하는 주요 수단은 클라이언트의 확보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표 4> 클라이언트의 지역적 분포

구분	수용시설 N (%)	사회복지관	
		유료 N(%)	무료 N(%)
인근동	4(7.1)	12(57.1)	14(63.6)
구청	7(12.5)	5(23.8)	5(22.7)
부산	33(58.9)	2(9.5)	3(13.6)
부산·경남	5(8.9)	2(9.5)	0(0)
전국	7(12.5)	0(0)	0(0)
합	56(100%)	21(100%)	22(100%)

수용시설의 재정적인 자원의 염출과 관련해서 볼 때, 「수용인원」은 「인건비」(n=52, r=.4776, p=.000), 「운영비」(n=52, r=.8454, p=.000), 「생계비」(n=50, r=.9327, p=.000) 와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³³⁾ 수용인원을 수용시설들에 제공해 주는 것도 또한 공공기관이라고 본다면,³⁴⁾ 정부자원 즉 지역사회외적 자원이 수용시

33) 93년도 시정산자료에서 도출된 것으로, 「수용인원」은 연말기준 수용인원 총수, 「인건비」, 「운영비」, 「생계비」는 정산서의 분류기준을 따른 것.

34) 클라이언트 유입경로를 [공공기관 의뢰] [타민간기관 의뢰] [클라이언트 자발] [직원 인태이크] 등으로 표시하여 각각의 % 를 붙은 결과: 수용시설 n=59, [공공기관의 의뢰]가

설과 같은 사회복지조직들에 대해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은 부인하기 어렵다.

수용시설들의 자체부담 능력의 개발 가능성에 있어서도, <표 4> 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수용시설들의 서비스 대상 인원의 분포가 주로 부산지역이나 혹은 그 이상이 주가 되므로, 부산 전역 이상을 토대로 한 지역사회 자원의 개발이 강조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앞에서 논의된 후원인 분포지역과 <표 4>를 비교해 보면, 후원인 분포 지역과 클라이언트 분포 지역에 있어서 이러한 일치가 적절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지역사회복지관들의 경우에는 클라이언트 자체가 지역사회 자원의 직접적인 원천이 되는 성향이 강하게 나타난다. 특히, 「무료이용인원」과는 별다른 관계를 보이지 않자면, 「유료이용인원」과 자체부담을 동원하는 능력 (<표 2> 「자부담」) 과는 유의미한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n=20$, $r=.4647$, $p=.020$).³⁵⁾ <표 4> 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클라이언트의 대부분이 인근 동지역을 중심으로 분포되어 있고, <표 3> 과 같이 자체부담 재정자원이 주로 유료이용인원들로부터 나온다면, 지역사회복지관들에서는 클라이언트에 대한 서비스를 매개체로 하여 지역사회 내부에서의 자원 동원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자원제공자(유료이용인)가 갖는 영향력으로 인해서, 이들 조직들이 유료이용인원을 위주로 한 서비스를 수행할 수 밖에 없게 되는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형태의 서비스 전달체계는, 지역사회내에서의 상호의존적 가능 수행을 위한 자원의 순환과 재분배라는 지역사회복지관의 목적에는 그다지 적합하지 못한 것이다.

3. 인력 자원

인력 자원은 크게 조직의 구성원과 자원봉사자를 들 수 있는데, 자원봉사자는 사회복지조직들의 지역사회적 자원 활용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강조되는 자원이다. 조

평균 91.5%로 나타남.

35) 복지관의 클라이언트 변수는, 먼저 유료이용인원과 무료이용인원으로 나누었고, 여기에 대한 각각의 일일 평균 이용인원을 구한 것이다.

직의 활동에 필요한 자원봉사자의 중요성에 대한 질문에 대해, 대부분의 기관들이 대체로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거나 기관종별 성격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표 5> 참조). 사회복지관이나 (입양기관 2곳을 제외한)상담·홍보기관의 경우 [절대필요하다]는 입장을 강하게 나타내는 데 반해, 수용시설의 경우는 다소 그 필요성에 대한 인지가 떨어진다.

클라이언트 자원이 비록 간접적이기는 하지만 어떠한 형태로든 재정적 자원의 동원에 영향을 미치는 것과는 달리, 자원봉사자 자원은 재정적 자원의 동원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는 않는 것 같다. 「정부보조금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비 기준)」의 규모와 자원봉사자의 「필요도」, 「현재수」, 「적정수」 모두 뚜렷하게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는다.³⁶⁾ 한편, 자부담의 동원능력(<표 2> 「자부담」)과는 높은 관계를 보여준다. 「현재수」와의 관계에서 ($n=66$, $r=.4813$, $p=.000$), 「필요도」와의 관계에서 ($n=68$, $r=-.3318$, $p=.003$), 자부담의 동원능력은 의미있는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정부보조와 자체부담을 합친 전체 재정자원동원 능력 (<표 2> 「전체」) 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의미있는 관계는 다시 나타나지 않는다 (「현재수」와의 관계: $n=66$, $r=.0427$, $p=.367$; 「필요도」와의 관계: $n=68$, $r=-.1214$, $p=.162$). 대부분의 조직들에서 정부자원이 재정자원의 주요 부분을 차지하는 것을 감안하면, 비록 자부담의 경우에는 부분적인 차이가 나타나지만, 전체적으로는 자원봉사자 관련 요인들이 재정자원의 동원과 별다른 관계가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

36) 자원봉사자에 대한 질문에서, 「필요도」는 <표 5> 와 같고, 「현재수」는 현재 활동중인 자원봉사자 총수를 말하고, 「적정수」는 기관을 위해 필요로 하다고 생각되는 적정한 자원봉사자의 수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표 5> 자원봉사자 필요 정도

구 분	전체	수용 시설	사회 복지관	상담·홍보 입양
1 절대필요하다	30(40.0)	12(24.0)	14(73.7)	4(66.7)
2 필요하다	33(44.0)	28(56.0)	5(26.3)	0(0)
3 크게필요없다	12(16.0)	10(20.0)	0(0)	2(33.3)
4 절대필요없다	0(0)	0(0)	0(0)	0(0)
합	75(100%)	50(100%)	19(100%)	6(100%)

* 기관종별3대구분 : Chi-Square (Chi-square=19.9496, DF.=4,
Sig.=.0005, Cramer's V=.36469)

자원봉사자 관련 요인들은 오히려 조직의 기술적 성격들과 보다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실은, 기관 요인과의 관계에서 있어서 기관의 「직원수」와 자원봉사자의 「필요도」 (n=72, r=-.4123, p=.000), 「직원수」와 자원봉사자 「현재수」 (n=70, r=.4594, p=.000) 가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³⁷⁾ 클라이언트수나 조직의 재정 요인들보다는 오히려 직원수와 같은 요인들이 자원봉사자 요인들과 밀접한 관련을 나타내는 것은, 클라이언트를 다루는 조직의 기술적 성격이 자원봉사자 자원 활용에 보다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³⁸⁾

4. 지역사회 자원 동원을 위한 조직의 노력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하기 위해 조직들이 취하는 노력은 조직의 홍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홍보는 조직의 활동을 지역사회에 알리고, 조직에 필요한 자원들을 지역사회로부터 얻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조직에 필요한 자원이 앞서

37) 기관의 「직원수」는 전문직과 일반직을 모두 포함하는 유급인력의 총수.

38) 조직 요인으로서의 직원수와 인적자원동원능력 간의 유의미한 상관관계는 사회복지관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참고:김상균·백종만·오정수, 전계서, pp.37-38.

제시된 환경적 요인들이라고 본다면, 홍보는 이러한 자원들을 획득하기 위한 조직의 노력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조직의 전체 예산 중 홍보에 투자되는 비용을 보면, <표 7> 과 같다.³⁹⁾

재정자원은 사회복지조직들이 조직의 유지를 위해 필요한 직접적이고 일차적인 자원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재정자원은 아직까지는 대부분 지역사회 외부 환경에 존재하고 있었다. 따라서, 조직들이 현재와 같은 상태에서의 급격한 변화를 원하지 않는 이상에는, 재정자원을 획득하기 위한 지역사회 복지조직들의 노력은 지역사회 내부 자원보다는 정부 환경 등과 같은 지역사회 외부 자원환경에 보다 초점을 두게 될 것임을 의미한다. 사회복지조직들이 전체 예산 중 홍보에 투자하는 비율은 조직의 지역사회 자원 획득을 위한 노력을 나타내는 한 지표로 볼 수 있다. 재정자원 환경과의 관련성에 있어서는, 정부보조금 (「정부보조」) 이 많은 곳일 수록 적은 비율의 홍보비 (<표 7>의 「홍보비율」) 가 지출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n=67, $r=-.3043$, $p=.006$). 또한, 「홍보비율」은, 정부자원에 대한 의존도를 나타내는 가관 총예산중 정부보조가 차지하는 비율 (「정부보조비율」) 과의 관계에서나 (n=66, $r=-.4722$, $p=.000$) 적정한 정부보조 비율에 대한 희망 (「정부보조희망%」) 과의 관계 (n=68, $r=-.2249$, $p=.033$) 에서도, 역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사실들로 미루어 볼 때, 지역사회 내부적 자원 활용에 대한 조직들의 관심과 노력에도 지역사회 외부적 자원환경이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9) 기관의 전체 예산중 홍보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을 open question 형식으로 물었다.

<표 7> 기관별 홍보비용 투자비율(%)

구분	MEAN	S.D.	N
전체	2.3	3.7	71
수용시설	.7	1.5	44
아동	.9	1.8	14
노인	.5	.5	6
장애	1.6	2.1	9
부녀	.2	.4	9
정신	.0	.0	6
사회복지관	4.4	4.8	20
상담·홍보·입양	6.1	4.1	7

* 기관별7대구분:ANOVA (D.F.=6,64,
F= 5.3317, Sig.= .0002, Eta= .5773)

** 기관별3대구분:ANOVA (D.F.=2,68,
F=15.8896, Sig.= .0000, Eta= .5644)

클라이언트 자원은 조직의 치명적 자원인 재정자원의 동원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자원은 지역사회의 성격 규정에 따라, 지역사회 내부 혹은 지역사회 외부에 위치하기도 한다. 클라이언트 자원의 확보와 홍보노력과는 별다른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홍보비율」의 「수용인원」과의 관계 (n=46, r=-.1467, p=.165) 와 사회복지관의 「이용인원」과의 관계 (n=19, r=.0633, p=.398) 등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클라이언트 자원과 홍보와는 별다른 의미있는 관계를 내포하고 있지 않는 것 같다. 클라이언트 자원 확보가 조직의 유지 활동에 있어서 직접적 의미를 갖고 있지 않다는 이유 외에도, 클라이언트 자원이 아직까지는 사회복지조직들에 희소성을 가진 자원으로 인식되지 않는 것이 이러한 현상을 나타내게 하는 원인이 되는 것 같다.⁴⁰⁾ 다만, 클라이언트 자원 확보에 대한 조직들의 관심은 재정자원 확보와

40) 앞으로의 클라이언트 확보에 대한 전망을 묻는 질문에서 (n=76, 「매우어렵다」 1.2%, 「어렵다」 30.3%, 「크게어렵지않다」 47.4%, 「전혀어렵지않다」 21.1%) 로 대답했다. 특이

의 관련성을 통해서 설명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자원봉사자 자원은 재정자원 동원과의 관련성 부족으로 인해, 아직까지는 조직의 운영에 있어서 치명적인 자원은 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원봉사자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조직의 노력은, 오히려 조직의 기술적인 성격들에 의해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지역사회 복지조직들에게서, 재정적인 환경에 의한 지배를 비교적 약하게 받으면서 자발적인 노력을 통해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 부분이 자원봉사자 자원의 동원과 관련이 있다. 자원봉사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조직의 홍보노력(「홍보비율」)은 현재 활동중인 자원봉사자의 수와 긍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n=65, r=.3046, p=.007$). 그 외에는 적정 자원봉사자 수(「적정수」)와 자원봉사자의 필요 정도(「필요도」) 등과는 별다른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고, 「직원수」와의 관계도 나타나지 않는다.

대부분의 조직들에 있어서 재정자원(경우에 따라서는 클라이언트 자원까지)의 주된 공급처가 정부조직에 있고, 아직까지는 지역사회적 성격의 자원들이 다수의 사회복지조직들에 치명적인 자원이 될 수 없다는 상황을 염두에 둔다면, 지역사회 내부 환경요소들은 조직의 유지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곧 지역사회 내부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필요성이 현재까지는 일선 서비스 전달조직들에 심각하게 대두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기도 하다.

V. 결론 : 연구의 한계 및 함의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복지조직들의 지역사회 자원 동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에 대한 분석에 있었다. 연구의 결과를 통해 나타나는 한계와 그러한 한계하에서의 함의는 다음과 같다.

한 점은, 사회복지관의 40%($n=20, 8/20$)가 어려울 것으로 예측한 것에 비해, 수용시설의 31.3%만이 어려울 것으로 답해, 수용시설이 클라이언트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이란 일반적인 예상과는 상반되는 결과를 나타냈다.

1. 연구의 제한점

연구 방법상의 문제로, 사회복지조직들에 대한 성격을 상급관리자를 통해 파악하려 했던 점은 제한점이 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사회복지조직에서의 상급관리자와 하급직원들 간의 태도 차이를 반영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식의 조직에 대한 성격 파악은, 소규모의 사회복지조직에서는 큰 문제를 나타내지 않으나, 비교적 조직의 규모가 크거나, 조직이 개방적일 수록 문제가 될 가능성이 커진다.

연구대상 사회복지조직들을 부산지역에 국한시킨 것은 일반화에 있어서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만한 지역적 특성의 중요성은 크지 않는 것으로 보이나, 여전히 통제될 수는 없었던 부분이다. 추가 연구들이 본 연구에 대한 일반화의 가능성을 뒷받침할 수 있을 것이다.

보다 세분화된 중별구분에 의한 사회복지조직들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자료 분석과정에서 나타난 동종기관들 간의 높은 수준의 표준편차는, 이들을 적절히 제어할 수 있는 보다 세분화된 조직 구분이 여전히 필요로 함을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는, 기관종별 7대구분과 기관종별 3대구분의 유의도와 상관관계 비교에서 이러한 사실을 엿볼 수 있었다. 비록 가정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성격에 대한 통제가 적절히 이루어졌다면, 정부규제나 법적 조건과 같은 결정적인 지역사회 외부환경 요인에 대한 설명을 보다 적절하게 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자료의 신뢰성에 대한 문제로서, 익명성이 결여된 질문지법에 의한 자료수집 방법의 단점이 본 연구의 자료수집 결과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비록, 추가적인 비교자료를 확보하여 이러한 문제들에 대응하였으나, 이들 자료조차 신뢰성에 대한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이 분야에 대한 추가 연구들이 본 연구 자료와 결과의 신뢰성을 가감할 수 있는 준거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 결과를 통한 함의

본 연구 결과를 통해 나타난 이론적인 함의는, 사회복지조직의 특정 행태에 대한 구명이 조직 외부환경적 요인들의 분석을 통해 가능함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는 것

이다. 또한, 조직들에 대한 외부 환경을 다시 지역사회를 기준으로 한 내부 환경과 외부 환경으로 나누어, 이들의 상대적인 영향력에 대한 크기를 측정해 봄으로써, 이러한 구분이 지역사회 복지조직들의 지역사회 자원 활용에 대한 이해를 위해 중요한 변수로 고려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는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현재의 노력들에서 일선 지역사회 복지조직들에 대한 이해가 우선적으로 필요함을 보여준다. 일선 조직들이 보여주는 다양한 환경적 자원들에 대한 가치 평가와 이에 따른 행동 방향에 대한 이해가, 지역사회 자원 활용과 같은 정책적 당위성을 효과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방안들의 마련에 중요한 변수들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본 연구는 강조한다.

사회복지조직들의 지역사회 자원 활용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지역사회 외부 자원의 존재이다. 지역사회외부적 자원들이 대부분의 사회복지조직들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조직의 지역사회 내부 자원에 대한 관심과 실제 활용도는 낮아질 수 밖에 없는 것으로 보인다. 비록 조직들 간에 부분적인 차이는 존재하지만, 지역사회 외부 자원들 중에서도 특히 정부조직이 갖고 있는 재정자원, 클라이언트 공급(수용시설의 경우), 합법성 등은 현재로서는 조직들에게 대안적 요소들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지역사회적 자원 활용이 '지역사회적 기능의 복구'라는 순수한 이념적 목표에서 출발했다면, 이를 실천할 수 있는 자원을 지역사회 환경에 되돌려 주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자원이 지역사회 내부에 존재하는 것을 확인함에 의해서, 지역사회 복지조직들은 지역사회에 보다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지역사회 자원 동원의 부진 문제에 대한 이유와 활성화를 위한 해결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조직들의 성격 변화에만 초점을 두는 것은, 그러한 성격을 나타나게 한 원인은 도외시하고 결과만을 갖고 우연히 끝부분에서 있는 복지조직들을 비난하고 있는 모양이다 (이것이 아마, 복지에 대한 stigma 기능을 대변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복지조직들에게는, 주어진 운명일지도 모르지만). 지역사회 자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복지조직들에게만 지역사회 자원의 활용을 강요하는 것은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에 있어서 조직 윗부분에 존재하는 모든 과정들의 문제회피식 주장일 수 밖에 없다. 사회복지조직들에 있어서의 조직 외부환경의 지배적인 영향력을 감안하여 볼 때, 지

역사회 복지조직들의 성격 변화를 위한 시도는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자원환경의 변화에서부터 그 출발점을 찾아야 할 것이다.

개별 사회복지조직들에 대해 지역사회적 자원 활용에 대한 강조를 할 때에도, 지역사회적 범위는 조직들의 성격적 구분에 의해 각기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지역사회적 범위는 획일적인 지역성만으로 해결될 수 없으며, 문제의 성격, 자원 동원의 가능성, 클라이언트 분포 등을 고려해서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부분적으로나마 종별구분을 통한 사회복지조직들 간의 비교를 통해서, 이러한 차이가 명백하게 존재하며, 사회복지조직들을 중심으로 한 서비스 전달체계의 구상에 있어서 이러한 지역사회적 범위의 규정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환경적 요인들에 대한 본 연구의 강조가, 지역사회 복지조직들에 대해 환경의 수동적 동조자로서의 역할만으로 자신들의 활동이 합리화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은 결코 아니다. 조직의 입장에서 본다면 조직이 스스로 선택 가능한 환경적 요소들은 여전히 존재하며, 그 안에서 조직들은 최선의 선택을 하기 위한 노력들을 끊임없이 해야 한다. 비록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구체적으로 제시될 수는 없었지만, 유사한 종별 사회복지기관들에서 나타나는 지나친 동질성은 어쩌면 지역사회 복지조직들의 외부 환경에 대한 방관적 수동성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다. 현재 요구되고 있는 지역사회 자원 활용에 대한 강조는, 지역사회 복지조직들에게 지역사회와의 보다 밀접한 관련을 통해, 지역사회내부적 자원의 창조까지도 시도해야 하는 과제를 부여하고 있는 듯하다.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복지조직들은 자신들이 처한 환경을 엄밀하게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해 조직 외부 환경 요소들에 대한 조직의 선택 폭을 넓혀 나갈 수 있을 것이다.